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말씀 따라 순종하기

(느 8:13-18)

Obeying God According to His Word

(Neh 8:13-18)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두운 인생의 길에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결코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

David confessed,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All of us cannot walk through the dark path of life without the word of God who is our light. Today, God's word tells us clearly what the object of our life is, and what the meaning of life is.

1. 말씀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13절)
백성들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소위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통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1. We must absolutely be sure in God's word

"On the second day of the month, the heads of the all families along with priests and the Levites, gathered around Ezra the scribe to give attention to the words of the law"(v. 12).

The heads of the people, priests, and the Levites, so-called leaders did not only hear God's word and receive His grace, but they also studied His word, had a thorough knowledge of His word, and went even further to advance so far as to apply the word into their daily life.

It is important for us to completely know and understand God's word, and receive His grace.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밝히 깨달아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부흥이 임한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14절).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자손대대로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레 23:34절을 보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행동에 옮기기로 결정 합니다.

2. When we put God's word into action, we come to a revival.

"They found written in the law, which the Lord had commanded through Moses, that the Israelites were to live in booths during the feast of the seventh month".(v. 14)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the holy week to return their hearts back to the grace of God who led and protected the Israelites during the exodus out of Egypt to the desert. And after finishing the harvest, they celebrated God's grace with thanks and joy. God clearly commanded Moses that the Israelites should keep this feast for generations to come. In Leviticus 23:34, the Lord said to Moses that they should keep the feast for seven days, and those who were born in Israel were to live in booths during the feast. Nevertheless, God's command was never kept even once since the time of Joshua. Therefore, the people who had now listened to the word of God decided to put it into action.

The Israelites now felt a great burden to keep the feast of Tabernacles that they had not kept for the last several hundred years. They worried about too many things such as where they could bring down branches, and where they could set up a tent. However, they not only heard God's word, and responded in a heart-felt 'Amen,' flowing in tears of confession, and resulting in joy and happiness, but they also moved into action and overcame all inconveniences to completely obey God's word.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많은 나뭇가지들을 어디서 해울 것인지, 또 어디에 텐트를 칠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3. If we obey God's word, we will receive the blessings of real joy and peace

"The whole company that had returned from exile built booths and lived in them. From the days of Joshua son of Nun until that day, the Israelites had not celebrated it like this. And their joy was very great"(v. 17).

The Judaic people who kept the feast of Tabernacles were very happy. Although they were tired and uncomfortable in their life, the reason why they were happy was that they remembered and obeyed the creator God, God of Israel, and God the redeemer. Now they were very happy, because they found out God's word and were able to obey God's word.

3. 말씀을 순종하면 참 기쁨과 평안의 복을 받는다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주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17절).

초막절을 지키던 유대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생활은 불편했지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분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기쁨과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God's word is before us. If we stop at just reading and hearing God's word, saying Amen, flowing in tears of confession, and being happy and joyful, it cannot be a true revival or blessing. By going forth in action and completely obeying God according to His word, I earnestly pray that you will receive the most wonderful grace, happiness, and victory that you can enjoy on this earth.

제4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9월5일(월)-11월7일(월) 10주간 /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

제4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와 목회"를 주제로 9월5일(월)부터 11월7일(월)까지 10주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열린다. 1교시(오후2시 - 오후3시30분)는 김정우 교수가 창세기 강해(12-50)를 하고 2교시는 주제에 따라 박노철 목사 외 7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특별히 9월5일 첫째 주 1교시 강의는 김재진 목사가 보록강의를 한다. 목회자들의 목회발전과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목회자세미나 브로슈어를 발송 중인 봉사자들

위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1교시	2교시 주제	2교시 강사
1주 (9/5)	(보록강의) 히브리 인자구조에 의한 성경이해 (영적실체에 대한 경험과 예수의 부활) 김재진 목사(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부원장)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본 한국국민의 정치의식	손병호 교수(역설여대 전 총장)
2주 (9/12)	[주석연구 휴강]		
3주 (9/19)	창세기 강해 12-50 김정우 교수(홍신대, 구약학)	자연과학의 발달과 기독교 생명윤리	박상민 교수(전 안양생명원장)
4주 (9/26)		교회현장 속에서의 목회자(선교사)의 목회(선교)윤리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5주 (10/3)	[개천절 휴강]		
6주 (10/10)	창세기 강해 12-50 김정우 교수(홍신대, 구약학)	사이버(cyber) 문화 속에서의 시민윤리와 기독교 윤리	박용우 교수(송실대)
7주 (10/17)		다음세대(청소년)의 성(性) 윤리의 문제점과 기독교적 극복방안	임우민 교수(백석 예술대)
8주 (10/24)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	노영삼 교수(장신대)
9주 (10/31)		종교개혁(청교도) 경제윤리와 자본주의	[종교개혁 기념일] 김형민 교수(호남신대)
10주 (11/7)		교회의 윤리적 책임과 부흥	박노철 목사(서울교회)

2011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9월5일(월)-11월13일(주일) 10주간

2011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9월5일(월)에 개강하여 11월13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성도들과 지역주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준비되고 있다. 천국시민양성과 만민에게 전

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2011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신청서와 브로슈어는 28일(주일) 주보에 간지로 삽입될 예정이다. 신청은 28일(주일)부터 사무국에서 받는다.

이웃사랑, 아가페타운 건립, 농어촌 미자립 교회 돕기

2011 사랑의 바자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

9월29일(목)-30(금), 서울교회

우리 서울교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2011 사랑의 바자가 9월29일(목), 30일(금)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2011 사랑의 바자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를 표어로 이웃 사랑의 실천과 아가페타운 건립,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와 교회목표 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힘쓴다. 또한 바자 시작 전부터 진행되는 사랑나눔 A+캠페인과 온라인 바자물을 통한 사랑의 우물파기 운동을 통하여 9월 한달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한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발대식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갱신"

8월27일(토) 오후2시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우리 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는 8월27일(토) 오후2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갱신"을 주제로 발대식을 갖는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는 7개 기독교 신학회(한국장로교 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감리교회, 한국루터교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웨슬리교회)가 모

여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까지 성경적 기독교를 세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회복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갱신과 한국신학계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이 발대식을 위하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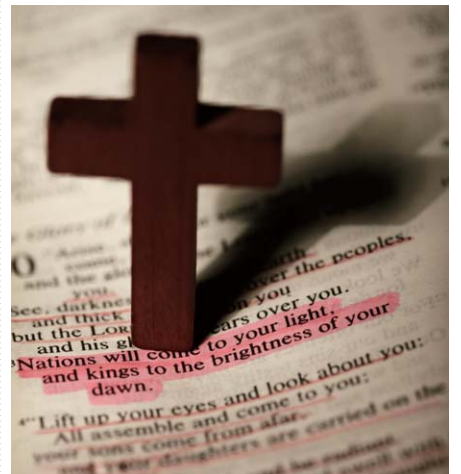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6]

(문 13) 아담과 하와와 두 아들들은 아내를 얻었다 했는데 이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인가요?

(답) : 창세기 5:4에 의하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창 5:5). 이 긴 세월동안 아담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충만 하라(창 1:28)는 약속대로 땅에서 번영케 되었습니다. 이들 중 형제와 자매간에 가족을 이루어 후손을 낳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번영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촌 또는 친족 간 결혼은 아브라함 때까지 허물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를 자기 누이라(창 20:2)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근친상간 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레위기 20:17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 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리고 이모나 고모, 숙모나 숙부,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이들에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레 20:19-21).

그러나 아담의 아들들 즉 가인과 셋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그들의 누이들과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밝혀지되 처음에는 희미하던 것이 나중에는 확실해지듯이 처음에는 근친결혼이 허용되다가 후일에는 금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허물치 않으시나 지금은 모든 죄가 드러나 있으므로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다음 주 계속)



장로교 한(1)교단 다체제운동 시동 걸었다

장로교 한(1)교단 다체제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금) 한국기독교 학술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뿌리를 둔 한국장로교회는 총회창립100주년을 맞이하여 분열의 상처를 통회하고 성경적 교회로 회복하고자 장로교 한(1)교단 다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장로교회는 미국 남·북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 그리고 호주장로교회 등 다양한 국가적, 신학적 배경을 가진 장로교도들이 하나가 되어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조직하여 '일교단 다체제'를 이미 실현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장로교회는 250여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어 교계는 물론 사회적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한 한장총은 2010년 7월 10일 제 2회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 한(1)교단 다체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7월 10일에 있었던 장로교의 날에서 격려사를 아신 이종윤 원로목사

리고 9월 총회 시, 한장총 대표회장이 각교단 총회를 방문하여 한(1)교단 다체제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설명하여 총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2011년 제3회 장로교의 날 행사 시 이를 위한 특별기도를 드리고 이날 교단 총무 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 날 추진위원회는 어떤 역경과 방해물도 뛰어넘어 장로교회 한(1)교단 다체제를 반드시 이룰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채워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갈 것과 한(1)교단 다체제의 대의를 위해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운다는 3가지를 다짐하며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나누어 본질적인 것이 같으면 연합하라는 칼빈의 제안을 숙고

하여 개인과 자파의 주장과 공명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심의 본을 받아 서로 섬기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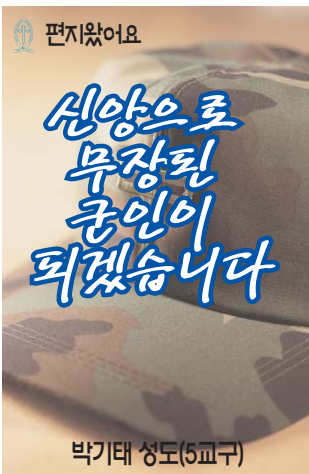
그리하여 한국의 장로교가 세계교회에 연합의 모범을 보여 성도들에게 장로교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일교단을 이루어 통일문제, 사이비 이단문제, 선교사 교육 파송문제, 군선교문제, 신학 교육문제, 환경문제, 대정부 사회문제, 타종교와의 관계문제 등을 다루고, 다체제를 통해 각기 다른 총회의 특성을 유지 보완하고 상호 협력하는 업무 수행을 개발 추진토록 할 것이다. 이제 한장총은 옥동지를 출산했으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1)교단 다체제의 행정 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사역을 감당하여 각 총회의 현의사항을 교단 총대들이 모인 한장총에서 논의 결의하여 교단 총회에서 집행토록 할 것이다.

한국의 모든 장로교가 성숙한 장로교인으로서 한(1)교단 다체제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계교회에 연합의 모범을 보여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한다.

Soli Deo Gloria!

허숙 권사 (편집부)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기도해주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 2020 본부에서 군선교사 훈련을 받고 훈련소에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가 봐도 군인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유격훈련이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유격주이고, 유격조교 시험도 다음주에 있다고 합니다.



박기태 성도(5교구)

교회에서 군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보았던 이갑진 장로님이 해병대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장로님이 아닌 장군님으로 통하는데 오늘도 이갑진 장군님이 훈련병 정신교육시간(연평도 영결식 UCC)에 나오시더라고요. 참 반가웠어요. 그리고 오늘 해병대 역사관에 갔었는데 역대 사령관, 역대 1사단장 사진에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새삼 느끼며 그런 분에게 군선교사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그렇게 높은 분이 군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기서 건강히 잘하고 있으니깐 염려마세요. 항상 최선은 다한다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

각이 듭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누가 보든 안보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대 와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무엇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역하고나서는 더욱더 가족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이사야 43:2) 라는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약 20일간의 훈련을 마치면 이제 저는 진짜 해병이 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니 조국을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도 키워주시고, 신앙 가운데로 인도해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군선교사 훈련을 통해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서울교회 비전 2020 본부에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성호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시며 부활이요 구주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높고 더 크십니다
 예수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이름보다 더욱 뛰어나시며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주 예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다하여 섬기며 충성함이 자녀 된 기쁨이요 증거입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함은
 만민을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선언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사오니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홀연히 임하실 때
 우리가 부활로서 들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비옵나이다
 아멘

고석규 장로(16교구)

만민에게 전도 - 13교구 농촌전도 봉사

은혜에 은혜가 더해진 시간

김장섭 집사(13교구 간사)

저희 13교구(교구장 조정식장로)는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2박3일)간 강원도 인제에 있는 서흥교회로 교구 자체 농촌전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보다 앞서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아시고 후원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의료의 손길이 필요함을 아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으며, 저희의 행사 스케줄에 맞추어 일기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지로 떠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구 자체 농촌전도 봉사인지라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저희도 모르는 거대한 힘에 이끌린 지금 돌아봐도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히 움직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기간 저희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한 축호방

문, 의료봉사, 주민초청 경로잔치 겸 인형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군부대를 방문하여 어머니의 손길을 그리워 하는 장병들에게는 이미용 봉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으며, 저녁에 함께 드러진 군부대 부흥집회 시는 주방팀을 중심으로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장병들의 손에 쥐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150개가 넘는 샌드위치가 장병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스스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복녘 땅 금강산을 바라보며 행하여진 호국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던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는 더 없이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13교구는 이번 농촌전도 봉사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준비하는 과정과 현지에서의 전도를 통해 교구원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3독> 김희진 권사(6교구)
- <2독> 유을상 집사(6교구) 박인규1 장로(11교구) 국산옥 권사(11교구) 장양일 집사(16교구)
- <1독> 안창휘 집사(2교구) 정복금 권사(2교구) 임윤자 권사(8교구) 채덕희 권사(8교구) 육순자 성도(11교구)이남성 집사(9교구) 김우숙 권사(14교구)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인 고성진집사가 지휘하는 "서울아버지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린다. 고성진집사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나운영곡)"를 독창으로, 서울아버지합창단은 "예수박애는(김성근곡)"과 "주님의 택함이었오(김성근곡)"를 한정은선생의 피아노 반주로 드린다. 서울아버지합창단은 1998년 창단한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삶의 풍성한 경험을 한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민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월 21일(주) 할렐루야교회 주일예배설교를 한다. 22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제7회 학술상 시상식을 한다.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총회표준주석편찬위 원고 검독 작업을 한다. 27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발대식을 갖는다.
- 이갑진 장로는 세계기독교인회 동아시아 담당 부회장 자격으로 8월23일-29일 몽골기독교인회 주최 Interaction 참가.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대만 7개국 대표가 참가한다.
- 박사학위 수여 : 양세정 집사(1교구 오병호 집사 부인) 이화여대에서 공학박사
- 주간식당 봉사 : 에스더전도회(8.21) 한나전도회(8.28)
- 금주의 식사 : 14교구 이태송 집사 정진영 집사 가정(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다락방사역 리더 일일수련회

2011년 8월 26일(금) 10:00 ~ 15:00 / 본당

다락방사역 리더 일일수련회가 8월2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서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등록은 오전9시30분부터 시작하며 이날 박노철 목사는 "다락방 사역의 꿈"(고전 13:1-13)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유문건 목사는 "건강한 다락방을 세우는 7가

지 원칙"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자녀 문제로 못 오는 다락방장, 부다락방장들을 위하여 김안성 목사와 김은숙 전도사가 별도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모두 참여하여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자녀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

- 8월26일(금) 오후8시20분, 임우민 교수 특강-

8월26일(금) 금요기도회는 자녀들의 개학을 맞이하여 임우민 교수(백석예술대학 교수,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녀들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진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지난 주에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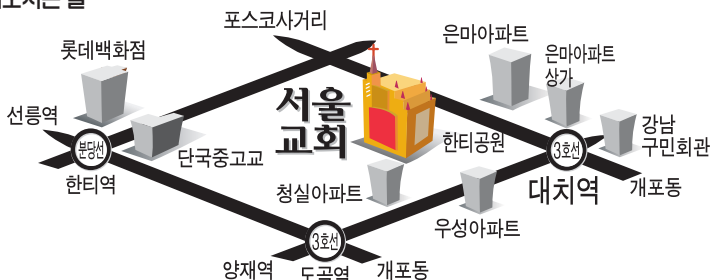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신혼가정부 수련회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락방 사역 리더 일일수련회를 통하여 성경적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비전과 헌신이 임하도록
2. 자녀를 위해 특별금요기도회로 모일 때에 말씀과 기도 응답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3.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